마조 '一喝'과 운문 '三傳語'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堂堂坐斷千差路(당당좌단천차로)
倒騎鐵馬入重城(도기철마입중성)
蓮花朶朶火中開(연화타타화중개)
靑山步步水上行(청산보보수상행)

당당히 앉아서 천차로를 끊고
철마 거꾸로 타고 중성을 들어감이라.
연꽃은 송이송이 불 가운데 핌이요
청산은 걸음걸음 물 위를 행함이로다.

금일은 경자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우리가 세간의 온갖 풍요와 편리를 마다하고 자발적으로 산문을 폐쇄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정진하는 것은 오로지 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는 데 있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스스로 닦아서 스스로 증득해야 함이로다. 〈중략〉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위대한 마조 선사(馬祖禪師)의 회상(會上)에서 전국의 발심한 납자(衲子)들이 밤낮으로 용맹정진하여 84인의 도인(道人)제자를 배출하였음이라.

그 중에서 향상일구(向上一句)를 투과하여 확철대오(廓撤大悟)한 전법제자는 백장(百丈)선사와 남전(南泉)선사 등 오륙인에 불과함이라.

석일(昔日)에 마조선사께서 법상에 앉아 계시던 차제(此際)에 백장 스님이 들어오니, 선사께서 법상 모서리에 걸어 놓은 불자(拂子)를 들어 보이셨다.

그러자 백장 스님이 여쭙기를, "이를 바로 씁니까, 이를 여의고 씁니까?"

하니, 마조 선사께서 그 불자를 원래 걸려 있던 자리에다 도로 걸어 두셨다.

한동안 백장스님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마조 선사께서 물으셨다.

"그대는 장차 양 입술을 열어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가려는고?"

그러자 이번에는 백장스님이 걸려 있던 불자를 들어 보이니,

마조 선사께서 다시 물으셨다. "이를 바로 씀인가, 이를 여의고 씀인가?"

백장스님이 아무 말 없이 불자를 도로 제자리에 걸자, 마조 선사께서 "억!" 하고 벽력같은 '일할(一喝)' 을 하셨다.

이 '할(喝)' 에 백장스님이 혼비백산(魂飛魄散)하여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가 깨어나서 마조 선사께서 '할' 하신 뜻을 깨달았다.

몇 년 세월이 흐른 후에, 황벽(黃檗)스님이 백장 선사를 방문하여 친견하고 며칠 머물다가 하직인사를 하였다. "어디로 가려는가?"

"강서(江西)에 마조 선사를 친견하러 가고자 합니다."

"마조 선사께서는 이미 천화(遷化)하셨네."

"저는 인연이 없어서 그 위대한 마조 선사를 한 번도 친견하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래도록 마조선사를 모시고 지도 받으셨으니, 저에게 마조 선사의 고준한 법문을 한 마디 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백장 선사께서는 마조 선사를



참예(參詣)하였을 때, 불자를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내가 그 때 마조 선사께서 '할(喝)' 하신 소리에 사흘 동안 귀가 먹었었네."

황벽스님은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는 결에 혀를 쑥 내밀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마조 선사의 '일할(一喝)' 에 두 분이 활연대오(豁然大悟)하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황벽 선사는 백장 선사의 상수제자(上首弟子)가 되어 법을 이으셨다. 〈중략〉

또한 선종오가의 하나인 운문종(雲門宗)의 개창조(開創祖)인 운문(雲門) 선사께서 세연이 다해가니, 대중에게 세 가지 법문을 내리셨다.

첫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도인가?

두번째, 어떤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가나제바(迦那提婆) 존자는 부처님 심인법 제14조 법손인 용수보살의 제자로서 당시 인도의 96종의 외도를 조복(調伏) 받아 제바종의 종지(宗旨)를 크게 드날렸다.

세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보검인가?

이 세 법문을 대중에게 제시하니, 파릉(巴陵)스님이 멋진 답을 하심이라.

첫번째, 어떤 것이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이가 깊은 우물에 떨어졌습니다."

두번째, 어떤 것이 제바종인가? "은쟁반에 흰눈이 소복했습니다."

세번째, 어떤 것이 진리(眞理)의 보검인가? "산호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달렸습니다."

운문 선사께서 파릉스님의 답에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열반에 든 후, 기일(忌日)에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들려다오." 라고 하셨다.

마조 선사의 일할(一喝)과 운문 선사의 삼전어(三傳語)를 알아야만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아는 것이고, 진리를 천추만대(千秋萬代)에 전하는 저력을 갖추어 모든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고,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에서 진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이라.

이 법문을 알아오는 이가 있으면 산승이 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전해줄 것이라. 노력하고 또 노력할지어다.

대중은 운문 일가(一家)를 알겠는가?

盲人相逢堪笑處(맹인상봉감소처)
扶籬摸壁可憐生(부리모벽가련생)
눈 먼 사람들이 서로 만나 웃는 곳에
울타리를 붙잡고 담장이라 하니 가히 불쌍하구나.

눈앞에선 부처도 티끌이로다

태고종 종정예하 지허 지용 대종사

대중들이여! 여러분은 각기 삼세의 모든 부처가 지닌 지혜와 대상을 한 치도 다름없이 본래 소유하였다. 〈중략〉

중국의 당나라 현종 때 약산 유엄(藥山惟儼, 751~834) 선사라는 분이 계셨다.

약산 유엄이 어느 날 석두 선사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남쪽에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는 법이 있다는데 저에게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으니 바라건대 선사께서 자비로 지시해 주십시오." 하니 석두 선사가 "이래도 안 되고 이렇지 않아도 안 되고, 이러하거나 이렇지 않건 간에 모두 안 되니 그대는 어찌 하겠는가?" 물었다. 이에 약산 유엄이 우두커니 생각에 잠기니 석두 선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인연이 여기에 있지 않다. 강서에 마조 대사가 있으니 거기에 가서 물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하였다.

약산 유엄이 마조 대사에게 가서 석두 선사에게 물은 것과 똑같이 청하여 물으니 마조 대사가 말하기를 "나는 어떤 때는 그대에게 눈썹을 드날리거나 눈을 껌벅이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썹을 드날리거나 눈을 껌벅이지 않게 하나니 어떤 때는 눈썹을 드날리거나 눈을 껌벅이게 하는 것은 옳고 어떤 때에 눈썹을 드날리거나 눈을 껌벅이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리라"하니 약산 유엄이 이 말에 깨달은 바가 있어 공손하게 절을 올렸다.



이에 마조 대사가 묻기를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하니 약산 유엄이 "저가 석두 선사에게 있을 때는 마치 모기가 무쇠소에게 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였다.

대중들이여. 어떠한가? 약산 유엄이 부처가 되고 싶은 소망은 우리와 같다. 그런데 마조 선사에게 약산 유엄이 절을 했다 하고 석두 선사가 물었을 때는 약산 유엄은 "모기가 무쇠소에 기어오르는 것 같다" 하니 천하의 마조 도일 대선사가 약산 유엄의 확철대오를 이로 하여 인가하였다 하므로 깨치지 못한 사람은 그 답답함이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안거를 인정하고 화두 하나에 철저히 용맹정진하다 보면 언젠가 한 찰나에 격외의 대광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西來的的意(서래적적의)
正好默無陣(정호묵무진)
怒目嗔何事(노목진하사)
佛是眼前塵(불시안전진)
서쪽에서 온 밝고 밝은 뜻/만고에 좇아버리지 않고 잠잠히 지녔네/눈을 부릅뜨고 무슨 일로 성내는가/ 눈앞에는 부처마저도 티끌이로다.

청정법신은 항상 안락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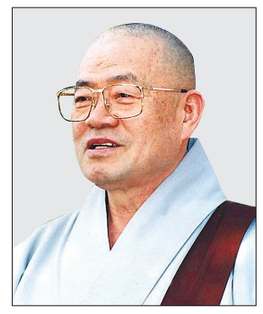
쌍계총림 방장 고산 대종사

實參實悟如來見이요 自誑誑他邪魔眷이로다
若也不爲虛喪日하면 無不解脫還本際로다
실참실오는 여래의 견해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를 속이는 것은 사마의 권속이로다
만약 또한 헛되이 세월만 보내지 아니하면 해탈하여 본제에 돌아가지 아니함이 없도다

時會大衆이 欲還歸本際인댄 須具三種心이니
一曰大憤心이요 二曰大勇猛心이요 三曰大疑心이니
本參公案에 箇箇直說이어늘 何故로 不悟오 切切參祥이어다

시회대중이 본제에 돌아가고저 할진댄 모름지기 삼종심을 갖추어야 하나니
첫째는 대분심이요 둘째는 대용맹심이요 셋째는 대의심이니
본참공안에 낱낱이 바로 설했거늘 무슨 연고로 깨닫지 못하는고? 간절히 참상할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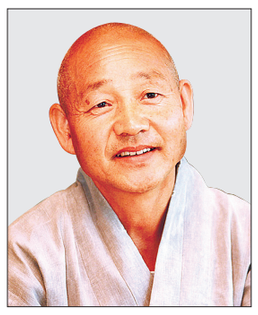
以柱杖子로 擊法床云하되 如是打破一切衆生의 無量業障하고
又擊法床云하되 如是打破佛祖新薰窠窟하고 又擊法床云하되
如是現出現前大衆의 本來面目하니 大衆은 還會得這箇道理麽아
良久 一喝 云 雲散萬里에 孤月獨照니라.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치고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일체중생의 무량업장을 타파하고
또 법상을 한번치고 이르시되 이와 같이 부처님과 조사의 신훈과굴을 타파하고
또 법상을 한번치고 이르시되 이와 같이 현전대중의 본래면목을 현출하니 대중은 도리어 이 도리를 알겠는가?
잠깐 있다가 "할" 을 한번하고 이르시되 구름이 만 리에 흩어짐에 외로운 달이 홀로 비추는니라



頌曰
淸淨法身無去來하야 舊來不動常安樂이로다
虛明自照無障碍하니 傳處甚幽皆格外로다
청정법신은 거래가 없어서 옛적부터 동하지 아니하여 항상 안락하도다
텅 비어 밝아 스스로 비추어 장애가 없으니 전하는 곳이 심히 깊어 다 격외도리로다

허공 같은 수행자의 삶

영축총림 방장 성파 대종사



讚不及毁不及이니
了解一法通萬事로다
無欠無餘是眞面어늘
爲君勸作波羅密이로다

칭찬도 미치지 못하고 훼방도 미치지 못하니
한 법을 요해하면 만사에 통하도다
모자람과 남음이 없는 것이 진면목이니
그대를 위해 바라밀 짓기를 권하도다.

총림대중이 삼동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문출입을 삼가며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해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성하게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하는 가풍은 참으로 수승한 일입니다.

증애와 시비에 끄달리지 않고, 각자가 맡은 최소한의 소임으로 화두참구에 전념하여 무위를 체득하고 대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역경은 좋은 스승이자 도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진해야 하며 이를 득력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제불조사님께는 바라밀실천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세간의 근심스러운 일은 삼독심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대립은 반야지의 밝은 빛이라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무명업장이 소멸되면 진여자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 진여자성에는 일체의 어려움이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불법 안에서 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최선이 되는 이유입니다.

嶺雲閑不散하고
澗水走何忙인가
風去拾松子하야
烹茶越伽羅로다.

고개 위 구름은 한가히 흩어지지 않고
개울물 어찌 그리 빨리 흐르는가?
바람에 떨어진 솔방울 주워
차 달이는 향기 가라를 뛰어넘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법안문익(法眼文益)선사가 어느 날 문에 드리워진 발(簾)을 가리켰습니다.

그 때 두 납자가 함께 가서 동시에 주렴(珠簾)을 걷어 올립니다.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일득일실(一得一失)이로다.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선사께서 강소성 승주(昇州) 청량원(淸凉院)에서 법을 펴던 시절 어느 날 손가락으로 가만히 발(簾)을 가리켰습니다. 이처럼 선문(禪門)에서 많은 공부인들이 발(簾)을 통해 안목이 열렸습니다. 장경혜릉 선사 역시 발(簾)을 말아 올리다가 바깥 경계를 보고 깨달았다고 고봉원묘 선사는 '선요(禪要)' 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덕산선감 선사도 방장실에 쳐진 발(簾)을 경계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목이 바뀝니다. 숭신용담선사 방에서 발을 걷고서 문밖으로 나왔으나 바깥은 칠흑처럼 캄캄했습니다. 다시 발을 걷고 방 안으로 들어오자 용담스님은 지촉(紙燭)에 불을 붙여 덕산스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덕산스님이 받으려고 하는 찰나 용담은 '후~' 하며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덕산스님은 안목이 활짝 열렸습니다.

본래 주렴 안은 밝았고 주렴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찰나에 주렴 안과 주렴 밖이 동시에 밝아졌던 것입니다. 염내사(簾內事)와 염외사(簾外事)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덕산과 장경은 주렴을 사이에 두고서 일체의 현상세계(事法界)인 차별세계의 망상을 걷어버리고 이법계(理法界)인 절대평등의 경지를 체득한 것입니다. 〈중략〉



송직극곡(松直棘曲)이며 학장부단(鶴長鳧短)이라.

희황세인(羲皇世人)은 구망치란(俱忘治亂)이로다.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구나.
천하 성군시절의 사람들은
태평성대도 난세도 모두 잊는구나.

'유아독존', 언하대오의 한 마디

덕숭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눈 · 코 돌이키니 철저히 신령스럽네
쉬어 돌아오니 온몸이 본래 청정이라
인연을 놓고 상속을 끊으니 고금이
이 물건이로다.
백로는 싹트지 않는 가지 위에 꿈꾸고
숨길은 나무 끝끝마다 봄이로다
-만공스님 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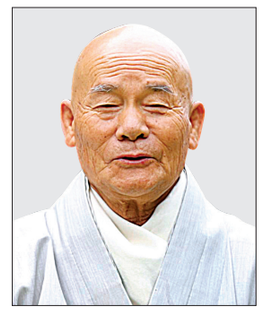
덕숭산 동안거 결제법회는 만공스님 열반다례일 전야에 산중이 대웅전에 모두 모여 "내 얼굴 못 보는 것이 내 법문이다"라고 하신 만공스님의 법문 분위기로 겨울 안거에 들어갑니다. 〈중략〉

수미산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산을 찾아 헤맬 일이 없어집니다. 그때 그때 인연 닿는 대로 산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한 마디가 화살로 청석 바위 돌 호랑이를 관통시킵니다. 모기의 침으로 철우의 무쇠 소가죽을 뚫고 피바다에 풍덩 빠지게 합니다. 부처님의 유아독존이 한 마디는 언하대오의 한 마디요, 부처님 탄생 제 일성(第一聲)입니다.

이 물건은 본래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고봉밥을 먹는 상머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상머슴이 되겠습니다.

스치는 작은 인연도,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우주를 굴려주는 대 달마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관세음보살입니다.

행자를 시봉하고, 대중을 시봉하는 대승보살이 되겠습니다. 검다, 희다를 넘어서 다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고불이요 태어나기 전이요
응연이 한 모양 둥그렀다.
석가도 오히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엽이 어떻게 전한다고 하느냐.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